

환경교육은 동북아 지역의 삶의 터전 조성(Locale and Ambience)을 위한 동북아 인의 공동과제로서 환경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의 출발이다.

정경채
대덕연구원

I. 서론

인간의 삶에 필요 되는 주거와 일터 공간 이외에 자원 생태 보존과 여가 문화 선용의 기능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대 자연에 대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간의 도전은 지역마다 시차적인 차이에 의해 자연과 인간과의 독특한 문화 교류의 패턴(transformation of landscape of culture and power)을 형성하게 되고 이점에 있어서 분명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가치관,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상이점(historic cultural symbolism)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논문을 제시하게 된 목적에는 서양의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관이나 제도를¹⁾ 조사 연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어 동서양간에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적용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질 높은 삶의 공간(spatial expression of culture in landscape)을 함께 조성토록 하고자 함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II. 본론

인간은 그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과 상생관계 속에서 상호존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문화가 비록 인간 중심적인 면에서 출발했다고는 하나 인간이 자연과 하나 속에만 공존 공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환경운리를 거역하고 인간의 삶을 멸절시키고 손상을 주는 악의 행위를 범하였기에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삶의 공간이었던 에덴의 동산에서 쫓

겨어 나게 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 추방되었던 선조들의 자손들은 축복된 자연에 도전하며 인간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조성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항변이며 도전이었고 조화라는 의미는 없었기에 기독교에서의 창조론의 근본적인 수정 없이는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은 단순한 인간 중심적이며 관념론적인 세계관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사회적 연대성을 가지고 보존 보호되어야 하며 공존 공생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물질적 욕구와 이기심에 의한 자연의 훼손 행위는 그리스도 사회적 교리에 의해 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권의 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의 재화에 대한 남용적인 소유와 사용은 생태적 위기를 좌초하기도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비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특히 신과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가 됨과 하나님의 역사를 재창조함을 기독교문화의 가르침으로 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교의 인간중심론적인 믿음과 사고방식에 의해 신과 인간만이 신성시되고 이를 위해 자연환경에 대한 동반자 관계는 도외시되고 파괴되고 있었던 사실은 근대산업사회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산업 활동을 통한 환경오염과 자연의 폐해는 생명의 보고인 자연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인간 삶의 질적 향상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반면 도, 유, 불교를 주류로 하는 동양사상의 자연관은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과 같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도

모하고 있어 동양적 전통 사상과의 접목도 기독교문화가 동북아 지역에서 뿌리를 댄어 활착하고 부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와 불교의 신자 수는 거의 비슷하나 기독교의 신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 개신교 그리스도인의 수는 남한 전체 인구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웃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전통적으로 유교 영향권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기독교인의 사회적·정치적 영향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21세기 들어서는 수도 서울에만 4,000여개의 교회가 번성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남한 전체에는 43,000개의 개신교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²⁾. 시장과 경쟁의 사회적 목표와 대상은 그리스도교 사회교리가 공동선(good for all)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복리, 공공복리 의미에서 공동선에 관한 시민의식이 국가를 존속시키는 조건이 될 것이다. 이와 반면 해방 당시 북한에는 1,400여개의 교회와 12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고 특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는 평양에는 교회만도 70여개와 2만 여명의 기독교 신자수가 있을 정도로 종교 활동이 번창했으나 공산 정권 수립 후 기독교는 현실 세계에 대한 환상적이며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신앙기초, 피 착취 근로 대중의 해방 투쟁을 말살하는 정신적 도구라는 공산정권의 종교관에 의해 탄압 말살의 조치를 받아 왔다. 중국의 카톨릭 신자 수는 현재 약 5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과의 대립 상태에서 공안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내인이나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생활은 지하당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점차 그들의 믿음의 영향은 개방과 다양한 가치관의 공유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1951년 중국의 북경 정부는 바티칸과의 관계를 끊었다가 2005년도 교황 존 바오르 2세의 죽음으로 천주교인들에게는 정부가 인정한 교회에서만 그를 애도하는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의 종교에 대한 획기적인 변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혁으로 그동안 지하당 교회로만 연명해오던 교회들이 50년 만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바티칸과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및 물적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윤리의 준수가 기업의 사업적 영역의 확산과 역할 분담,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21세기는 20세기의 성장 일변도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부터 인식과 이미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 환경문제를 문화 여가 선용 기능의 강화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복지의 본질적 문제로 재인식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개념 구상이 재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고전적 경제이론에 의하면 정부와 기업은 투자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행위를 수행하나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생산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폐해나 천연 자원의 고갈은 결국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저하시키는 고비용 저효율의 효과를 자아내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 드리고 이용하는 새로운 공간의 개념은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우리의 건강 웰빙 즉 생명의 가치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기업가 정신, 기업적인 창의성과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물질적 풍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화가 우리의 삶의 공간인 자연환경을 침해하고 오염시키는 유물론적 가치보다는 유기체로서의 자연 환경 속에 내생하고 있는 생명조직의 일부로서 역할 분담, 기능연계와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Green Marketing의 개념을 근간으로 이를 실현해 가는 정책적 경영이 요구되어지게 된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황량하게 경제 성장해온 수도권 지역에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옛 고적 마을의 수로를 복원시키어 마을 고유의 옛 공동체적 생활을 그린 마케팅과 상생시키면서 자연 속에 내생하는 생명력을 도심지로 불러들임으로서 수도권 지역 경제의 영양분(생산물)과 산소(활력)를 공급해주는 생물학적 허파와 심장의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유기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마을 공동체적 삶을 부활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³⁾. 생태 복음주의는 시장 경제주의에 입각한 접근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기술 혁신 방법으로 이러한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의무란 예수의 원죄를 없애는 것

이 아니고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게 하는 자연 현상(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넣어 주는 것이다. 환경 영역도 종교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존재와 삶의 질적 향상과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에 인간 중심화 되어 있는 기독교도 결국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환경보존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서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이 태초에 자연을 창조했고 그중 인간만이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고 책임질 줄 알고 자연에 대한 고유한 가치와 소유권, 관리책임 임무를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중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생명 중심적 자연관은 자연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가치와 유기체적 상관관계의 차원에서 보고 인간의 존재는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자연에 내재하는 생명력의 혼란과 무질서는 인간에게 재앙이나 병을 유발시키며 유기체적 상호 의존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자연의 모든 생태학적 역동 관계는 지역공동체적 차원에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어 훼손된 자연의 생명력을 복원시키어야 한다는 것이 생명윤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 영역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윤리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지역공동체의 대의 목표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때 지역 주민의 발전과 성장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희망도 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창조적 과업을 이룩하신 하느님의 역사는 그의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과 함께 그의 역사적 과업을 찬양하고 숭배한다고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III. 결론

황사 현상이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자연 현상은 인류의 삶의 존재에 기본적으로 위협이 되며 인류가 거주하는 지구상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비의 종교 영역으로 느끼곤 하는 삼위일체의 본질은 인간이 상생관계에 있는 자연과의 총체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 서양의 기존 문화에 녹아 있는 고전적인 종교관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때가

아닌가 한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 환경 오염이나 북한의 핵무기 체제 구축이나 확산과 같은 정책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북아 자유 무역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고 이 안전에 대해서 2005년 WTO에서 주관하는 홍콩의 도하 라운드(the Doha Round)에서 협의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장기간 이러한 물질문명을 이끄는 자연관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이 함양되어 이 문화가 자연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인간이 자연을 효율적으로 책임 있게 이용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단순히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실존적 유기체 완성의 한 요소로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인간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건전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중일 3국의 환경문제 해결방안과 빈곤에 관한 공감대 조성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자연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현하는 방안은 자본주의의 시차적인 차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국제 환경회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분야 이슈로는 공간 개발에 있어 문화 여가 선용기능 회복, 사회 복지기능 강화, 자연환경보호와 환경생태 보존과 관리, 균형적인 지역 발전, 빈곤 퇴치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지역 공동체는 특정 소수인의 폐쇄적 종교적 신념이나 신조로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한 공동체적 삶의 구성원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시대가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거대자본과 물질주의가 공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천이 되었다고는 하나 21세기에 들어 와서는 인간의 지식과 창의력 그리고 자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념 즉 그린마케팅에 대한 지각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공간 경제를 구성하는 원천과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환경윤리에 대한 인간의 의무, 책임과 도덕성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공간경제학적으로 승화시키어 자연보존에 대한 책임을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유인하여 인간과 자연간의 유기체적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윤리는 자연이 모든 생명의 모태가 됨을 말해 주고 있다. 자연이 생명의 모태라는 환경윤리가 전제되어질 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건강을 복원시키어 주는 생산품 즉 생명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동식물의 유기체적, 생명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사회, 경제, 그리고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자연의 모든 생성물은 자연 속에서 공존 공생의 관계를 이루며 생명력의 원천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연의 치유력을 발휘하여 자연에 근본적으로 내재하는 생명력을 복원시키는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힘이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Nature is the best physician.) 의사는 자연으로부터 사람의 건강 회복과 병 질환 치유에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여 약제를 만들어 내고 이를 약제로 처방도 하기에 우리 인간은 자연을 하느님이 창조하신대로 보존하고 다스릴 때에 생명의 원천인 보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자연은 가장 좋은 의사이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연구자들과 신학자 측면에서 성서

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연구로 인류의 삶의 터전위에서도 에덴의 동산과 같이 걱정 없는 삶의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는 동북아의 주요 경제국들 즉 한국, 북한, 중국, 일본 향후 평화로운 자유무역지대 조성에는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동북아 주민의 민중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민중적인 요소에 기독교 정신이 스며 있던 사례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 통합과정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기독교 정신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성직자들의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성서 해석이나 관련 문헌의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현대 산업사회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올바른 학문적 연구와 성서해석으로 복원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주 1. 대덕 연구소 인터넷 웹사이트 참조: <http://blog.daum.net/rhhrt>
- 주 2. Shin EuiHang(2002)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Religion and Adaption of Immigrants :The case of Revival Meetings in Korean-American Churches: Development and Society, Volume 31, Number 4, June 2002:pp123-162.
- 주 3. Feb 13, 2006, Newsweek